



5/20(일)

20:22 서강대에서 보이콧한 은하선씨를 총여에서 불렀다. (포스터 첨부)

20:34 은하선 부르면 총여사퇴운동 벌여야 한다. 왜 남학생 및 저런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여학생들의 등록금을 저사람 부르는데 써야 하나. → 학생회비어쩌구임....

5/21(월)

02:27 (비게) 총여는 왜 여학생 투표로만 뽑으면서 남학생 등록금도 받아서 활동하나? 왜 은하선을 연대 이름을 걸고 부르나?

02:10 (비게) 기독교 대학인 연대에서 은하선 부르면 제대로 신성모독이다. 막아야한다.

10:01 은하선에 대해 알아보자. (논란이 되는 내용 첨부)

11:34 은하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난주 젠더폭력 예방세미나 수업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처장이 와서 강연했다. 등록금이 아까웠고, 은하선 강연 역시 그럴거다.

12:35 십자가 달도 자랑하고 남혐하는 무논리 꼴페미가 온다. 쪽팔리니 여론 조성해져 막자.

13:45 은하선 오는거 싫으면 교목실에 제보해라.

15:20 은하선은 안된다. (교목실 번호와 이메일 첨부)

19:07 기독교 동아리, 기도모임에게 이번 총여가 부르는 은하선씨의 강연을 두고 침묵하기 않기를 요청합니다.

19:21 은하선 반대메일 보내자. (길고 정리된 글이며, 논란이 되는 내용 첨부함)

19:28 교목실에 전화 or 이메일 보내자.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사회분열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에게 연세의 이름, 학우들, 교수님, 교직원과 선배들의 이름, 언더우드 선교사와 이한열 열사, 윤도주 시인의 이름이 팔려나갈 수 없다.

20:05 총여해체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제안한다. 남학우들 및 은하선을 반대하는 여학우들의 등록금으로 은하선을 초대한 총여는 해체해야한다.

23:36 "은하선씨 강연을 반대합니다." "이번주 목요일에 열리는 인권 축제에서 은하선 작가님이 서시는 것이 정말 인권을 신장하는 일에 진일보하는 것인지에 대해 기획단과 총여학생회가 깊이 재고해주시길 요청합니다." (길고 정리된 글)

5/22(화)

13:01 "총여학생회, 왜 대답을 못하나요" (생물학적 남성이라고 언급한 페메 첨부)

14:43 총여학생회야, 나 게이인데 왜 우리 팔아먹냐. 생물학적 남성이 소수자가 아니어서 투표권을 줄 의미가 없다?

16:02 (비게) 페미니즘은 옳지만 은하선은 틀렸다. 표현의 자유에는 한도가 있다. 교목실 등에 반대이메일 보내달라. (길고 정리된 글)

18:57 사기죄로 고소당한 은하선을 총여가 주워오고 있는 거다.

21:25 십자가 달도 옹호하는 총여때문에 앞으로 학생회비 안낸다. 내 모교의 명예와 권위를 더럽히는 짓을 좌시할 수 없다. 강연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막을 것이다. (달도 사진과 강연 포스터 첨부)

22:22 학생총회에 총여 제도 폐지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주장한다. (길고 정리된 글)

22:53 모두 은하선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때,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예씨 역시 인권 축제에 온다. 녹색당은 모 여성 극단 사이트를 옹호하고 래디컬 페미니즘을

유감없이 드러내는 것으로 유명한 집단이다.

23:46 총여폐지 게시판을 만들면 조직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.

5/23(수)

00:03 총여 욕한번 하고 자기 갈 길 가지 말고,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 가지고 한번쯤은 움직이자.

00:25 (비게) 교목실에 메일 보냈다. 은하선 오면 학교 망신이다.

00:35 총여 제도에 대한 생각과 개편안 제안. (길고 정리된 글)

00:36 내일 은하선 강연 반대 서명운동 하면 동참할 학우는 말을 해달라.

01:35 총여는 연대생을 잘못 건드렸다. 못들은척 넘어가고 나중에 문제되면 모른척 하지 마라. 이쯤 되면 성명도 내고 하다못해 핑계라도 대야한다.

01:58 (ㅇㅅㅇ) 은하선 강연반대 서명운동 10 시 백양로. (불법과 부도덕의~ 로 시작하는 성명서 첨부)

01:58 꽤썩한 총여 해산하라. 서강대 사태보고 눈치보고 몸사리다 일주일 전에 날치기로 이런 일을 일으킨 것은 학생 우롱이지 학생자치기구가 할 짓이 아니다.

02:12 반대서명에 동참해달라. 중도 앞 대자보도 한 번 읽어달라.

02:16 나 원래 이런거 나서서 하는 성격 아닌데 내일 서명 간다. 총여 예전부터 끝보기 싫었는데 선을 넘었다.

02:44 “저는 서명할 것입니다.”

02:46 연세건학정신과 이념, 연세학우들의 입장을 담아 은하선 씨의 강연 반대 - 총여 해체 및 건설적 대안 제시 (길고 정리된 글)

02:52 은하선이 오든 안오든 총여는 폐지되어야 한다. 학생들을 기만한 학생 대의기구는 존립할 가치가 없다.

03:15 강연 중단에는 대자보가 생명이다. 이 사건의 심각성과 부조리함을 알리고 대자보를 통해 여론이 형성되어야 한다.

03:47 중도 앞에 은하선씨 강연 반대 대자보 붙였다. (사진 첨부)

03:55 중도 대자보 전문 (남성: 다리와 다리 사이~ 로 시작)

04:08 하루만에 여론을 형성하고 대자보를 붙였으며 실명을 내건 실명운동을 하고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.

04:47 총여가 대자보 떨어지도 모른다. 자기들이 검열 권한을 지녔다고 생각한다.

05:58 (ㅇㅅㅇ) 항의전화 가능한 학내 연락처 길게 첨부

09:43 (ㅇㅅㅇ) 국제처 총무처 다녀왔다. 회의 진행한다고 한다.

10:04 (ㅇㅅㅇ) 은하선작가 강연반대 서명운동 시작했다.

10:24 (비게) 화력 부족하다 학관 앞 가서 서명해라.

10:42 은하선 반대 서명운동 화력지원 부탁한다.

10:44 은하선 반대서명 등교하면서 하자. 총여 설치의 끝 더 이상은 못봐주겠다.

11:01 (ㅇㅅㅇ) 강연반대 서명운동 잠시 맡아주실 분 있나. 채플특송이라 자리를 비운다.

12:00 “여러분! 연대가 하선씨를 그냥 받아줘야겠습니까?”

12:20 서명 공대 앞으로 옮겨라. 지나가는 애들 웬만하면 다 해줄거다.

12:36 기독교 특방들에 은하선 반대 서명 올라오는 중이다.

12:55 반대서명 국캠에서도 한다. 도와주러 가자.

13:04 이런 상황에서도 총여 강행해서 온다면 인간 바리게이트 쳐야하는 거 아닌가.

13:30 “연상순이 한명 서명하고 왔습니다”

13:37 “연공돌이 한명 서명하고 왔습니다”
14:00 “총여에게 묻습니다” (길고 정리된 글)
14:35 강연 반대 온라인 서명 구글박스 열었다.
14:37 “총여가 강행한다면 그 대가는 파멸뿐” “총여 퇴진과 징계는 물론, 여총해산으로 이어져야”
15:00 지금 서명 300명 돌파했다.
15:24 온라인 서명 100명을 앞두고있다.
15:26 진짜 페미라면 은하선 반대해라. 페미니스트 대표 강연자가 저런 무자격자라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.
15:50 지금 600명 정도 서명했다.
15:33 “연세대 대단하다” “그 짧은 시간에 여론형성, 대자보, 그리고 서명 500명 돌파.” “총여 이래도 침묵, 강행 할겁니까?”
15:52 “이제부터 대숲은 급진 페미로 간주한다.” “30 시간동안 기다려도 글 5개중 하나를 안올려준다”
16:03 아직 학교측에서는 입장이 없는건가?
16:04 (ㅇㅅㅇ) 오늘자 서명 마감한다. 최종 596명.
16:12 연대 대나무숲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늦게 올라오는게 말이 되나.
16:20 이번 인권축제 관련 관계자 분들은 총여의 은하선 초청을 알았는가? 진정한 인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찬성 할 수 없을 거다. 진지한 관심과 성찰 부탁드립니다.
16:48 오늘 중으로 총여입장 없으면 오프에서 조직만든다.
16:49 이럴 때 총학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진다. 다음 총학이 제발 총여 없애고 총학 밑으로 성평등위원회 만들어라.
19:18 도대체 총여가 애들을 얼마나 화나게 했으면 모래알 연세가 뭉쳤는지 믿기지 않는다.
19:29 온라인 서명 참여 부탁드립니다. 1000명 서명이 목표.
19:52 (ㅇㅅㅇ) 서명운동 응원간식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(사진인증)
20:23 온라인 서명 다시 시작했다.
20:39 홍준표 강연 이야기하는 건 몰타기다. 크게 홍보하고 학교 이름 내걸고 한게 아니라 교수 개인이 강의시간에 초빙한거다.
21:07 내일 오후 6시에 강연시작인데 총여 답도 없고 답답하다. 내일 육탄전 준비하러 헬스갔다온다.
21:16 “슬슬 총여들 에타에 나타나기 시작하네”
21:29 “홍준표 이야기는 상대하지 마십시오” “지금 저들이 하는 저급한 공격에 장단맞춰줄 필요가 없어요”
21:32 반페미 이전에 기독교학교에서 은하선 부른다는게 수치스러워서 서명한 기독교인이 저 중 반은 될거다.
22:22 “수많은 계란은 바위를 깬다” (길고 정리된 글)
22:44 “총여는 불구덩이에 뛰는 중. 날치기 강행하고 성공했다고 낄낄거릴 수도 있겠지만 기어이 강행되면 진짜 해체될 가능성도 있음”
22:32 (ㅇㅅㅇ) 2차 서명운동 동참 부탁드립니다. 현 726명, 1000명 돌파가 눈앞이다.
23:02 “은하선 폐북상황. 이 사람 관중이야?” (폐북캡처 첨부) (오늘 연세대에서 ‘일부’ 학생들이 나눠준 전단지란다. 로 시작함)

23:07 은하선 모든말든 신경 안썼는데 딜도보고 너무 화났다. “연대가 미션스쿨이어서 서울대도 버리고 왔는데 저런 인간을 초청한다는게 정말 개탄스럽다.”

23:11 페미니즘 이미 기득권이다. 학생들이 힘모아서 몰아내지 않으면 자기들맘이다.

23:25 “하루 서명운동 596 명의 의미: 기독교인들 뭉쳤다. 비기독교인도 서명의 취지에 공감했다. 총여는 이미 학생들 마음 잃은 기관이다. 강연 강행하면 제일 먼저 불신임 받는 기구는 총여가 아니라 연세대 행정부처들이다. 내일 강연 취소해라.”

23:25 은하선은 페미니즘을 이용한다 생각한다. 페미니스트중에 나랑 같은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다.

23:28 반대운동 주도적으로 진행해주시는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.

23:33 “기소당한 적이 없다고? 검찰에서 기소했는지는 모르지. 근데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피소된거는 맞는데요?”

23:35 “대자보는 옳았다. 에타에 올라오는 비난 싹 들어가있네. 대자보 더 붙이자!”

23:37 “총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. 날치기로 인사 초대, 700 명이 넘는 학우들의 반대에도 무반응, 학우들이 고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초래. 학우들에 대한 반역이고 배반이며 자치기구로서의 역할 상실이다. 심판받아 사라져야 한다.”

23:53 “총여는 빨리 정신 차리고 강연 취소하세요. 무슨 망신입니까 진짜로”